

## 문화와 건강: 다문화 가정의 건강관리\*

강 신 표\*\*

### I. 들어가는 말

#### 1. 연구의 필요성

우리 옛말에 “그 사람, 복도 많다”라는 표현이 자주 나온다. 70대인 내가 어려서부터 노인 어른 들께 자주 듣던 말이었으니, 이런 표현은 한국인 삶의 양식을 평가하고 이해하는데 중요한 지표로 긴 역사를 지녔다고 하겠다.

복(福)이란 무엇인가? 복은 타고 나는 것인가? 아니면 스스로 짓는 것인가? 그 많고 적음을 어떻게 가늠할 수 있는가? 우리나라에서 복이라고 하면 다섯 가지를 꼽았다. 복이 많다는 것도 오복(五福)의 종류 범위 내에서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흔히 말하는 오복의 종류는 수(壽)부(富)귀(貴)다남자(多男子)치(齒) 등이다. 수는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다. 수명이 연장되는 것이 아니라 질병으로 고생하지 않고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건

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다. 옛날 노인들은 오래 살아오면서 쌓은 경험으로 인해 인생살이의 지혜를 가진 어른으로 여겼다. 어른은 사람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지혜롭게 극복해 나갈 조언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사람이었다. 시대가 바뀌어 이제 노인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가 더 이상 통용되지 않는 사회가 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집안에 어른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는 정서적 안정면에서 확연히 차이가 난다. 지혜는 인지적 차원과 정서적 차원을 다 포함하고 있다. 그래서 노인이 계신 것이 부담이고 또 축복이다.

남녀노소라는 말은 세상 사람을 통틀어 지칭하는 말이고, 동시에 한국전통문화의 “민속분류체계”(folk taxonomy)의 기본을 이룬다. 이 분류체계가 가지고 있는 함의는 크다. 남자를 여자보다 앞에 놓고 있다. 노인이 소년 소녀보다 앞에 가고 있다. 남녀, 노소의 유별은, 상하 서열이 함의되고 있다. 남자와 여자는 구별되고 있는데, 노인은 남녀가 함께 포함되고, 동시에 소년기의 젊은 아이

\* 이 논문은 2007년 부모자녀건강학회 추계학술대회 발표자료이다. 이 논문을 작성하는데 여러분의 도움을 받았다. 인제대 강신익 교수를 비롯하여, 동아대 이훈상 교수, 그리고 특별히 전북대 함한희 교수는 중요한 자료를 속달우편으로 이곳 대만으로 보내주고 논문의 전개방향에 대한 귀중한 제안을 제공해 주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분들께 감사의 뜻을 표한다.

\*\* 인제대학교 명예교수, 대만 Da-Yeh 대학 다문화연구 국제석좌교수  
교신처 강신표 : husokang@yahoo.co.kr

들을 뜻하는 소는 소년, 소녀를 함께 지칭 한다. 한 걸음 더 나가 분석해 보자. 남자와 여자는 평생 남자, 여자로 출생에서 사망까지 변하지 않는다. 그런데 노소는 누구나 그 과정을 경험한다. 젊은 소년기의 경험을 거치지 않은 사람이 없고, 늙어서 죽는 것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도 없다.

“한번 海兵은 영원한 海兵!” 이라는 말이 있다. 한번 남자면 영원한 남자고, 한번 여자로 태어나면 죽을 때 까지 여자로 산다. 요즘 성전환 수술을 한다고 하지만 자연적으로는 바뀌지 않는다. 性別은 일생을 통해 변하지 않지만, 연령은 누구나 노소를 경험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간의 삶을 자세히 관찰해 보면, 또 다른 측면을 보게 된다. 남자는 절대로 여자를 이해 못한다. “아니지!” “왜 못해? 나는 잘 아는데... 어느 문학 작품을 쓴 소설 작가를 보게나... 나도 충분히 이해해... 남자가 여자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말은 성립하지 않아!” 라고 잘라 말할 수 있다. 과연 그럴까?

여기서 문제는 소설가나 이를 따르는 사람이나, 모두 자기들이 알 수 있는 것만큼만 알 수 있을 뿐이다. 여자도 남자에 대해 마찬가지다. 노소의 문제도 한번 보자. 젊은이는 세월 따라 노인이 된다. 그러면 노인은 젊은이를 이해할까? 이해할 것 같다. 그러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지 않은가. 젊은이가 노인을 이해한다는 것은 처음부터 불가능한 일이다. 경험하지 못한 세계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는가? 젊은이를 경험한 노인들도 젊은이를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함에 있어서야 더 말할 것이 없다.

지금까지 논의한 것을 다시 정리해 보자. 남녀의 벽은 서로 절대로 넘을 수 없다. 그러나 노소의 벽은 누구나 세월 따라 넘어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인은 젊은이를 이해 못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나? 우리는 많은 경험 속에 산다. 그러나 인간의 삶은 “지금, 여기”에 한정된 삶을 살고

있을 뿐이다. 노인은 노인으로서 “지금, 여기”에 살기 급급하다. 자기가 경험했던 “과거, 그곳”은 “희미한 옛 그림자”로 남아 있을 뿐이다.

“다문화” 상황을 여기에 대입해 논의를 전개할 수 있겠다. 다른 문화는 다른 문화일 뿐이다. “지금, 여기”의 문제다. “과거, 그곳”의 문화는 “지금, 여기”의 문화와 다르다. 여기서 혼란이 온다. 문화는 언어와 같다. 한번 기억되면 일생을 함께 한다. 어려서 10세 이전, 5세에서 전후로 3-4년 사이가 결정적 시기(critical period) 이다. 달리 보면 다른 문화를 가진 부모로부터 태어난 아이들의 경우는 앞으로 “미래, 그곳”의 문제다. 다른 문화를 가진 부모 한쪽의 문화와 언어를 배우고 익힐 수 있으면 그 아이들은 어려서 그러한 “결정적 시기”에 아무런 어려움 없이 두 개의 상이한 언어와 문화를 익히고 배울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누릴 수 있다.

그러나 그 기회를 “모욕과 수치”로 여기게 부추기고, 그런 기회를 그냥 지나쳐 버리게 하는 것도 안타까운 일이다. 이제 한국에 사는 사람들은 “다문화 시대의 글로벌 사회”에 살아가는 지혜가 요구되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대책이 절실히 요청된다. 실제로 KBS와 MBC TV<sup>1)</sup> 프로그램이 한때 “아시아 시대”(?)라는 기획프로에서 다문화 가족이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소개하며, 시집은 외국인 가족, 일본, 말레이시아, 필리핀, 베트남, 카자흐스탄, 가족을 찾아가 “만남의 현장”을 밀착 취재하면서, 한국인 시청자들에게 다문화 가족의 슬픔과 기쁨을 공유하도록 돕는 한편 그들이 우리 사회에서 함께 살 수 있게 돕는 정서를 불러일으키는 역할을 시도하였다. 최근에

1) 각종 언론 매체들이 앞 투어 다문화 가족의 문제, 외국인 근로자들의 애환을 다루고 있다. 이는 한국사회의 성원들이 “국제화 시대”의 자질을 갖추어 나가는데 중요한 매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인다.

는 결혼한 당사자들을 넘어 그들의 각자 친가 부모들이 직접 만나는 기회를 취재하는 노력을 보임으로서 새로운 화제를 낳고 있다. 한국에 내려오는 “화장실과 사돈댁은 멀어야한다”는 문화규칙을 파기하기 시작한 것이다.

상이한 문화와 언어를 가진 사돈댁은 말이 통하지 않고, 문화의 이질성은 더욱 만남을 어렵게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자의 자녀들이 함께 살고 있다는 이유로 만나서 서로가 “무엇인가를 나누고 싶어 한다.” 서양식 “교양”으로 길들여진 “세련된”(우리가 보기에)필리핀 사돈에게, 한국의 사돈 시골 할머니는 반가움을 아무런 가식 없이 한국말로 알아듣건 말건 “거침없이” 표현하는데 주저하지 않았다. 그들 두 사돈댁 사이에는 의사 전달 어려움 없이 서로 통하는 것을 보았다. 사람들의 의사소통이란 그런 것이다. 원초적 감정 표현에는 장식이 필요 없는 것이다.

이러한 만남은 며칠이라는 짧은 기간이다. 그러나 “지금, 여기”가 순간적인 “지금”이 아닐 때 문제가 발생한다. 함께 살아가야하는 기간이 길어질 때는 오랜 “지금”이 축적되어야 한다. 그 축적은 “생활사”로 엮여 있다. 생활사를 공유하지 못한 경우가 “힘든 것”이다. 앞으로 이 공유하는 “생활사”를 만들어 가는 작업이 힘든 일이다. 다문화 가족의 돌봄의 내용은 이러한 인내를 돕는 일이다. 언어, 풍습, 태도, 등 일상의 차이를 서로 “소통”할 수 있게 돕는 것이다. 여기서 문화의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오복은 건강의 핵심을 설명한 한국의 문화적 전통이다. 문화연구 방법론상 중요한 한 갈래는 “민족 의미론”(ethnosemantics) 분야이다. 문화라는 표현은 어떤 단어를 붙여 사용하더라도 불편하게 여겨지지 않는 단어다. 대학문화, 지역문화, 아동문화, 청년문화, 국제문화, 의료문화, 등. 심지어 “21세기는 ‘문화의 시대’”라는 거창한 표현에 한

때 우리가 홀리기도 했다.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문화의 개념은 “문화인,” 고급문화, 저급문화, 문화생활, 등에서 나타나고 있다. 문화의 개념을 다루는 것도 학문 마다 각양각색이다. 사회학이나 문화인류학은 서로 상당히 인접한 학문분야이면서도 “문화” 개념을 사용하는 데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문화인류학 분야 내에서도 학자나 학파에 따라 사용하는 문화의 개념이 제각각이다.

인문사회과학에서 사용하는 분석적 용어는 “일상의 언어”를 “전문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 점이 자연과학의 분석적 용어와 근본적으로 달리하는 이유이다. 19세기 이후 자연과학의 발달은 인문사회과학이 자연과학을 학문적 모델로 삼게 된 데서 부터다. 자연은 인간이 “대상화”(objectify) 할 수 있는 객관적 존재다. 그러나 인문사회과학은 인간과 사회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고, 이는 “자기 자신이 포함된 세계”를 다루게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인문사회과학은 자연과학을 학문적 모델로 삼고 보니, 결과적으로 자기 자신이 포함된 세계를 “대상화”하게 되는 것이다. 주관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활세계”를 “객관적”으로 다루려는 학문적 노력이 얼마나 엄청난 폐해를 가져왔는가를 이미 현대 철학자들, 특히 현상학, 과학철학, 과정철학 등의 분야에서 충분히 경고해 왔다.

사람은 “의미” 속에 산다. 의미는 상징으로 존재한다. 그리고 주관적으로 존재하는 경우가 많다. 어떤 것을 두고 그것을 “경험”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간의 차이는 쉽게 논하기 어려운 과제다. 경험은 한 개인의 생활사의 “역사” 속의 한 “장면”이고 “풍경”이다. 이 장면과 풍경이 한 개인의 무의식 틀 속에서 한 사람의 일생을 지배하고 통제하기도 한다.

콘라드 로렌츠가 분석해 낸 “imprint”(각인, 刻印) 이론은 우리에게 많은 생각의 실마리를 제공한다. 첫 번째 경험이 오리새끼의 안막에 영구 각

인되어, 사람인 로렌스로 하여금 오리새끼의 어머니로 착각하게 만들고, 끝내 이 “imprint”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만다. 부모자녀 관계는 그 성장과정 속에서 어떤 “경험”을 하는 것으로 “imprint” 되느냐의 문제와 직결된다. 사회학을 위시한 사회과학 일반에서는 쉽게 “사회화 과정”으로 정의하지만, 정신분석학적으로 “심층 의식”의 차원으로 문제를 심화시켜 검토하면 인간존재의 실상이 무엇인가에 대한 근본 문제에 마주친다.

문화는 보편적 개념으로서도 존재하지만 개별적 차원으로도 존재한다. 다시 말해 어느 시대, 어느 나라에도 적용해 볼 수 있는 문화의 개념이 있는가 하면, 어느 한 시대나 아니면 한 민족·국가에서만 통하는 문화를 논의해 볼 수도 있다. 앞에서 이미 언급했지만 한국 사회에서도 지역, 계층, 교육, 세대, 경제, 정치 등의 차이에서도 상이한 문화를 논의할 수 있다.

나는 언제나 학생들에게 “세상은 보는 대로 있고, 마음먹기 달렸다”는 이야기를 강의 첫머리에 한다. 이는 “세상이 ‘존재’ 해서 본다.”라는 생각을 뒤집어보는 훈련을 시키는 것이다. 한국문화는 한국 민족의 역사와 더불어 쌓여 온 것이다. 그 역사는 끊임없이 재구성되고 있다. 기억이란 “과거의 경험”이 끊임없이 “재구성”되는 가운데 지속되는 것이다. 재구성된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국가 사회적으로는 이른바 공교육에 사용되는 “교과서” 내용이요, 언론매체 또는 문인 작가들의 작품세계,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의 역할이 재구성을 도울 것이요, 다른 한편으로는 가족 친척 친구, 개인적으로 “사적 이야기”들이 “재구성” 작업에 중요한 구실을 하고 있다.

이러한 재구성 작업에 “오복”의 개념은 공적인 차원과 사적인 차원에서 과거에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이제 오복의 개념도 많이 달라지고 있다. 그러나 이 오복의 으뜸 요소가 수(壽)

라는데 주목해야한다. “건강해야 오래 살지!” 특히 웰빙(well-being) 이라는 새로운 단어는 “건강을 위한 삶” 이라고 풀이 된다.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건강한 삶의 양식이 웰빙이다.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라는 새마을 노래를 부르던 시절은 이제 잊혀진 옛 노래가 되었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고 나니 새로운 문제가 나타난다. 설 줄 모르는 스트레스, 좋은 음식의 과다 섭취로 비만과 당뇨, 운동부족, 혹은 과잉, 인스턴트, 또는 유전자 변형 식품, 끝없는 욕심, 우리의 현대 생활은 과거의 생활에 너무 많은 차이를 가져왔다.

지나친 추리일지 모르나, 내 생각에 과거, 최소한 조선조의 선인들은 욕심을 확대하기보다, 줄이려고 노력했다. 재물과 자원이 한정된 상황에서 욕심을 내 보았자 달성할 수 있는 가능성은 적었다. 이 문제는 개인적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왕조의 정치 체제적) 문제와 결부된다. 철저한 양반-상민-천민의 신분 구분체제는 조선왕조를 500년간 유지할 수 있었던 기반이었다. 이 체제에서의 생존 전략은 “욕심을 줄이는 길”외는 없었을 수도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이를 이용해 권력/지배 세력은 지나친 욕심으로 백성을 착취할 수 있었던 경우가 없지 않았을 것이다.

여기서 우리의 논의는 문화의 “의미”를 살펴보고, 이러한 이해 속에 우리나라 사람의 건강 개념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를 논의하는 것이다. 문화의 의미는 강신표의 대대문화문법으로 설명해 볼 것이고, 건강 개념도 이 대대문화문법으로 풀이해 보고자 한다.

## II. 대대문화문법의 한국사회

어릴 때 배운 『천자문』의 첫 구절 네 글자는 한문자 언어 학습에 처음 접하는 구절이다. “하늘 천 따지, 검을현 누를황.” 이 네 글자는 한자 문화

권의 “문화문법”을 이해하는 출발이고 동시에 핵심을 이루고 있다고 보인다. 하늘과 땅이라는 두 개의 짝은 세상의 삼라만상을 “이해하고 설명하는데 사용하는 그물코”로 여겼다(강신표, 2004). 천지는 음양오행으로 이어진다.

아직 생존해 계시는 한국 주역의 대가 대신 이상정 선생의 이야기가 잊히지 않는다. “음양오행 별거 아니야, 사람 손이네. 손을 보게! 손바닥, 손등이 음양이오, 다섯 손가락이 오행이네.” 그분은 방대한 주역 해설을 많은 후학들에게 가르치면서 그 핵심인 내용을 이렇게 표현했다. 풀어쓰면 팔만대장경으로도 모자라고, 한마디로 말하면 “萬法歸一”이다. 이는 사람 사는 이치에 대한 불교적 표현이다. 동아시아 한자문화권의 중세시대의 공통언어인 한문자는 儒佛道巫의 기록에 관여하는 한 “대대문화문법”의 구축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러한 이해가 가능하다고 본다.

팔만(만법)이라는 다(多)와 귀일이라는 하나(一)는 서로 짝을 이루고 있다. 의상대사의 “법성계”에 나오는 “一卽多, 多卽一, 一微塵中 含十方”(하나는 많은 것이오, 많은 것은 하나이니, 하나의 작은 티끌에도 동서남북 4방향 과 그 사이에 있는 간4방향, 하늘과 땅 2방향이 합해진 10방향에 있는 모든 ‘시방삼세’를 포함하고 있다. 삼세는 과거, 현재, 미래를 말함)이라는 표현과 일맥상통하고 있다.

70대의 나의 세대를 포함하여 선배세대들에게 『채근담』이나 『명심보감』 2)이라는 책의 많은 구절들은 일상생활의 지침을 주는 좌우명으로 자주 인용되고 활용되었다. 이 책은 유교와 불교와

도교가 모두 용해되어 있는 내용이다. 우리 할머니나 어머니 세대에 있어서 무교(사머니즘)적인 사상은 일상의 집안일에 “의례”적 행동으로 표현되는 것을 기억한다. 산천초목과 천지신명에 정화수를 떠놓고 “빌 손”하던 자세는 눈에 선하다. 이러한 상이한 세계관이 공존할 수 있는 배경에는 “대대문화문법”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본다.

여기서 “대대문화문법”이 어떻게 작용하는가를 구체적 사례를 들어 얼마나 설명력이 있는가를 함께 고찰해 보자.

강신표는 음양이라는 대대적 인지구조가 하나의 “문화문법”으로서 어떤 “규칙성”(rules)을 가지고, 오늘날 한국사회의 “현실 세계”에서 작용하고 있는가를 해명해 보려는 것이다. 한국 사회학이나 문화인류학이 한국 “현실 세계”를 외국이론에 비추어 해명해 놓은 것이 상당히 많이 축적되었다. 여기 소개하는 글은 20년 전에 발표한 논문이다.<sup>3)</sup> 현재 다시 이 논문을 보완한다면 사회학계와 문화인류학계의 연구업적들을 기초로 “대대문화문법”이 적용 가능한 많은 사례를 첨가하여 확대 풀이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다. 대대의 개념을 인지적(cognitive) 차원에서만 다루고 있었다는 한계점이 있다. 최종렬이 지적하는 “정서적이고 도덕적”인 차원의 논의(최종렬, 2006)도 대대문화문법으로 다룰 수 있지만 나의 지적훈련 기간에 받은 한계는 인지적 차원에 머물고 있다는 점을 고백해 둔다. 그때의 글을 옮겨 보면서 몇 가지를 보충하도록 하

2) 『명심보감』은 조선조 한국인의 저서다. 『동의보감』처럼 중국의 모든 고전들을 집대성한 것처럼, 『명심보감』역시 그러하다. 이는 18세기에 베트남어로 번역되어 통용되었고, 스페인어로 까지 번역되었음을 일본학자가 밝혀 주고 있다. William de Bary 교수가 한국 성리학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이 이 책의 베트남 어 판을 접하고 부터라고 술회하고 있다.

3) 강신표, 1986, “근대화와 전통문화”, 『한국사회의 변화와 문제』, pp. 362-383, 한국사회과학연구협의회 편, 서울 : 법문사. 이 논문은 강신표 외, 공편, 1988, 『민족과 문화 (2) - 사회, 언어 (한국인류학 30년)』, 정음사, 에 다시 실리고, 그리고 이글은 “과거가 없으면 현재도 없다”는 제목으로 한샘 출판사 팀이 옮겼으며, 김홍규, 윤구병 엮음, 1993, 『길은 길을 따라 끝이 없고』, 한샘, pp.229-237,에 실렸다. 강신표의 출판된 글로 매년 인쇄로 들어오는 유일한 것이 이 논문이라는 점도 여기에 적어둔다.

겠다.

한국인의 인간관계의 기본 축은 ‘부(모)자(녀)’의 “대대”적 관계이다. 이러한 “가족관계”는 이웃사회의 인간관계로부터 시작해 학교, 직장, 정당, 경제조직, 국가 관료조직 등등으로 확대되어 있다. 어떤 학자는 이를 두고 “가족주의 문화”<sup>4)</sup>라고 했다. 실제로 효나 충의 개념 등은 가족주의 문화에 근간을 두고 있음은 누구나 인정하는 바이다. 시대가 바뀌어도 전통문화의 문화문법은 “현실 세계”의 심층구조로 작용하고 있다고 강신표는 보고 있다. 이러한 가족주의 “대대”성이 어디서 기인하는 가라는 문제를 미국 유학시절 인지인류학 내지는 구조주의 및 민속과학(ethnoscience)적 차원에서 해명하려 했을 때 “음양적 논리”에 기초한 것이라는 결론에 이른 것이다.

강신표는 1981년 한국학중앙연구원(당시에는 한국정신문화연구원)에서 “전통적 생활양식의 구조”를 연구하는 공동연구 과제를 수행하면서 한국전통문화의 특성을 “가족주의적 문화”로 규정하고 이에 포함된 ‘문화문법’을 다시 세 가지 차원의 규칙(rules)으로 요약해서 정리해 보았다. 첫째가 급수성이요, 둘째가 집단성이요, 셋째가 연극/의례성이다. 이러한 규칙성을 음양적 논리에서 비롯된 “대대문화문법”으로 규정하였다.

공간적 상하관계와 시간적 선후관계로 파악하는 대대문화문법은 자연과 사회(인간관계)를 파악하는데 있어서 “급수성”이라는 규칙을 생성한다. 왜 굳이 등급 서열이라고 하지 않고 바둑을 두는 사람들 사이에서 통용되는 “급수”라는 표현을 사용했는가에 대하여서는 까닭이 있다. 즉 등급 서열이라고 하면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세계이나, 바둑에서 사용하는 “급수”는 다분히 주관적으로 상호 이해하는 “간주관적 ‘평가’”(inter-subjective

evaluation) 로 통한다. 즉 “급수”가 낮은 사람은 “급수”가 높은 사람의 “바둑 놀이”의 “전략”을 읽어 내지 못한다. 이 점을 주목해야 한다는 점에서 “급수성”이라는 표현을 빌려왔다.

## 1. 급수성의 문화

이제 이러한 3가지 특성내지는 규칙, 또는 한국인의 “마음속에 있는 문양, 형식, 모델, 문화문법”<sup>5)</sup>을 하나씩 설명해 보도록 하자. 첫째, “급수성”은 바둑의 급수처럼 모든 인간관계를 등급별로 파악하려는 성향이다. 가족 관계에서 부모자녀로부터 시작되는 촌수의 항렬이며, 신분 차등 서열이며, 요즘 많이 논의되는 관료적 권위주의 등이 급수성을 보여주는 예들이다. 달리 말해 “음양의 정태적 대대관계”는 시간상으로는 선후관계요, 공간적으로는 상하관계이다. 선배와 후배(시간), 윗 자리와 아랫자리 사람(공간) 등의 대비가 중앙과 지방, 도시와 농촌, 양반과 평민, 혼반(婚班), 지체, 그리고 일류학교와 이류 학교, 학력 예비고사 등급 등등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는 우리 사회를 “지각하고 판단하는데 사용되는 마음속의 형식(문양)”이며, 이러한 “급수적” 차등 의식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다.

나이를 속여서까지 형 대접을 받고 싶어 하고, 유언비어가 유행할 때는 누가 더 많은 속보를 더 빨리 아느냐를 경쟁한다. 옛날에는, 한집안이 사환(仕宦)을 얼마나 냈느냐를 자랑하면, 다른 집안은 학자를 얼마나 배출했느냐를 자랑했다. 또한 한 집안이 얼마나 많은 사람이 벼슬했느냐를 자랑하면, 다른 집안은 얼마나 높은 벼슬을 했느냐로 경쟁했다. 오늘날 급수 경쟁에 가장 좋은 실례로는 시계라면 로렉스, 넥타이라면 에르메스 등의

4) “가족주의 문화”라는 표현은 최계석 교수의 『한국인의 사회적 성격』에서 제일 먼저 언급한 개념일 것이다.

5) 문화인류학의 Goodenough, Ward (1964) 의 문화정의에 따른 것이다.

일류/외제/유명 상표의 선호도에서 잘 나타난다. 이밖에도 혼수 경쟁 등 하나하나 다 열거할 필요도 없다. 최근에는 초등학교 학생들 사이에서 까지 명품선호도가 확대되고 있다는 신문기사가 나오고 있다.<sup>6)</sup> 이러한 현상은 조선왕조 시대의 생활 사적 현실을 재검토하는 작업을 요한다.

## 2. 집단성의 문화

둘째로, “집단성”은 한 개인이 가족의 일원으로 서만 존재할 수 있음을 말한다. 혈연, 지연으로 한 개인이 어떤 집단에 소속되지 않는 경우는 없다. 개인은 이미 “음양의 동태적 대대”관계 속에서, 다시 말해 “인간관계 속에서 제 몫(상생/상극)을 하는 개인”으로 존재해야한다는 문화문법의 규칙성이다. 최근의 사회학 분석 개념으로 활용한다면 “연결망”(network) 이론이 된다(송호근 외, 2004). 개인이 한 개인으로서는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 “연결망 속에 있는 개인”(집단의 일원)이 하나의

그물코(knot)로 그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고, 생존 전략에 동참할 수 있다. 그가 속한 집단에 대한 평가가 곧 그 개인에 대한 평가로 간주된다. 한 개인의 잘못은 그가 속한 집단/가족/문중/지방 등의 잘못으로 책임이 확대되어 간다. 이른바 ‘공동체 의식’이 그것이다.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라는 것으로부터 ‘우리 집안을 위하여 한 개인은 흔쾌히 자기를 희생할 수 있는 정신은 가족주의문화를 공유하고 있는 동아시아 한자 문화권 사회의 특성들이다. 동족(씨족)집단, 파족(派族), 우리 집안, 우리 고향 사람, 학교 동창, 그리고 한 때 대재벌들이 ‘대우가족’, ‘현대가족’ 등 대기업들도 가족 집단인양 “가족주의 문화”를 내세우며 집단의식을 고취시키기도 했다. IMF 사퇴가 터졌을 때 구조조정을 하면서 그 때까지 재벌 회사를 위해 ‘가족의 일원’으로 밤낮으로 열심히 일해 왔는데, 집안에 어려움이 닥쳤으니 “이제부터 당신은 우리 가족이 아니니 나가주시오”라는 이른바 ‘구조조정’을 했다. 잘살아보자고 회사를 한 가족으로 대우하다가, 어려움에 처해서는 “이제부터 한 가족이 아니요”라는 말을 어떻게 이해 할 수 있는가? 극렬노동운동의 시작은 “가족주의 문화문법”을 사용자들이 ‘교묘히 활용’한데서 비롯한다. “대대문화문법(가족주의 문화문법)”을 지키며 열심히 일했는데 어려움에 처하자 현대 ‘자본주의 문화문법’으로 “대대문화문법”을 일시에 대체하고자 하니, 극렬한 노동분쟁을 낳게 되는 것이다.

전통 사회의 혈연(血緣) 및 지연(地緣)처럼 현대 사회에서는 학업/직업/및 각종 활동의 결과로 만난 업연(業緣)이 또 하나의 “연결(줄)망”을 이루고 있다. 사실 출세하고 사업하고 취직하고 정치하는데 이러한 연결망 내지는 연결 결속체에 직접/ 간접으로 소속되지 않고서는 빛을 볼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흥미로운 점은 혈연집단에서 보이던 분절 현상이 업연 집단에서 쟁점이 생길 때마다 똑

6) “명품에 취한 한국사회...” [뉴시스] 2007년 12월 22일 (토) 오후 06:07 입력, “초·중·고생...”명품 아니면 안돼”; “한국사회의 명품 선호도는 연령, 성별, 지역을 가리지 않고 신드롬이 만연해 있다. ... 일부 부유층의 전유물로만 여겨졌던 해외명품 구입은 이제 직장인, 대학생은 물론 초등학교까지 명품 바이러스에 잇달아 감염됐다. 일부 여고생들이 명품 구입을 위해 계를 만든다는 얘기는 더 이상 새로운 것이 아니다. 또 초등학교생들은 고가의 명품을 구입할 수 없는 상황에서 진짜와 똑같이 만든 모조품이라도 구입하기 위해 많은 공을 들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명품을 선호하는 분위기가 사회 전체에 만연하면서 10대들이 이제는 가짜 명품에까지 눈을 돌리고 있다. 청소년들의 이같은 명품 선호 현상은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과시욕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고등학교 2학년 이모양(18)은 “가짜 명품이라도 구입하는 이유는 친구들에게 비싼 명품을 하고 다닌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측면이 크다”며 “제품의 실용성이나 디자인이 뛰어나서 구매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중학교 1학년 윤모양(14)은 “일단 명품을 하고 다니면 같은 반 친구들이 약간은 부러워하는 시선이 많다”며 “명품 구입은 다른 친구들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밝혔다.

같이 발견된다는 것이다. 대기업/ 군대/정당 등의 여러 업연집단 내의 결속이나 이산을 몰고 온다.

2007년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의 인수인계위원회에 재벌기업들이 자기들 관련 인사들을 참여하도록 “물밑 경쟁”이 치열하다는 기사도 나온다. 이 연결망에 접속된다는 것은 기업의 장래를 좌우하는 중요한 정보망의 통로이기 때문이다. 집단성은 현대적 표현으로 연결망(network)이다.

### 3. 연극/의례성의 문화

세 번째의 “연극/의례성”은 우리의 과거 전통 사회로부터 오늘날 현대 사회로까지 면면히 이어져 오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특성이다(강신평, 1984). “음양의 동태적 대대”관계가 극명하게 나타나는 경우이다. 위에서 “대우 가족”, “현대 가족”이라는 미명으로 피고용자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연극/의례성이요, 시대가 변했다고 구조조정이라는 명목으로 “가족”이라는 명목을 헌신짝처럼 버릴 수 있는 것도, 매우 정교하고 교묘한 수법으로 “연극/의례성”을 동원한 것이다. 지금 한참 진행되고 있는 대통령과 언론사이, 집권 여당내의 탈당의 명분, 한 때 야당 한나라당의 이명박, 박근혜 사이의 정치적 싸움은 조선조의 당쟁과 다름없고, 그 싸움에서 보이는 “연극/의례성”적인 주장과 변론은 “대대문화문법”의 작동을 분명하게 보여 준다. 이점은 민주화운동, 학생운동, 노조운동, 시민운동 등등에 있어서도 예외가 아니다. 이렇게 작동할 수 있는 것이 “대대문화문법”으로 풀이된다.

그런데 이 특성은 우리 언어의 문법처럼 무의식속에 자리 잡고 있는 문화적 문법이다. 이는 두 사람이 친형제 또는 친부자가 아니더라도 형뻘 동생뻘 사이라든지, 아버지와 아들 사이로 보여질 수 있는 관계 상황에 처하게 되면 각자 자기 역할

을 “연극”적으로 또는 “의례”적으로라도 수행해야 하는 ‘마음속에 있는 형식’인 것이다. 우리는 식당이나 가게에서 “아주머니”, “이모”라는 호칭을 자주 듣는다.

어르신이 걱정하실까봐 거짓말을 할 수 있다.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되지만 때에 따라서는 할 수도 있다. 회의하는데 자기의 생각은 안전에 반대하지만 “그 자리에서 ‘차마’ 반대할 수 있어야지?” 그래서 표결에서는 찬성해 놓고, 나와서는 반대의 소리를 한다. 이른바 ‘예’와 ‘아니오’가 “연극/의례성”이 지배하는 사회에서는 겉으로 또는 체면상의 ‘예’와 ‘아니오’가 되기 쉬운 거다. “연극/의례성”의 사회는 “연극과 의례”를 잘 해야 정치도, 사업도, 심지어 학문(?)도 잘 할 수 있다. 우리 사회에서는 관청이나 직장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 출세한 사람일수록 아랫사람이 무엇을 요청했을 때 가부를 분명히 하지 않는다. 찬반과 가부를 잘라 말하지 않고, 찬성하는 것 같으면서도 반대하는 것 같고, 그래서 시험 답안지의 OX 만이 분명할 뿐, 찬반 양쪽 어느 집단에 대해서도 욕을 먹지 않는 “연극”을 잘 해야 잘 사는 사람이 된다. 한때 젊은이들이 말끝마다 붙이는 ‘갈아요’나 ‘글쎄요’ 같은 표현은 전통 문화의 이러한 구조적 원리에 기초하고 있는 것이다. 대대라는 음양의 논리는 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음 속에 양의 씨가 포함되어 있고, 반대로 양 속에는 음의 씨가 포함되어 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음양 각각은 자기 안에 씨로서 존재하던 반대 속성이 짝으로 피어난다. 이것이 자연의 논리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 전통적 세계관이다. 그래서 “어떻게 딱 잘라 말할 수 있나요?!” 같은 말이 성립한다.

따라서, ‘만장일치’, ‘일사불란’ 등의 표현이 오늘날 한국 정당들이 의논하는 자리에서 자주 나타나는 것도 이러한 “연극/의례성”을 대변하는 것이다. 김광익 교수는 한국농촌에서 이견 조정 및



분쟁 해결의 정치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자세히 보고하고 있다(김광익, 1984). 지도자나 중재를 넣어서 마을 전체 사람들의 ‘만장일치’를 공식적(표면상)으로 얻게 되며, ‘양편 다 말된다’는 식으로 분쟁의 해결을 이끈다. 한국 전통 문화에서 분쟁을 해결하는 대표적 방법은 ‘없었던 것으로 하자’이다. 시비와 분쟁이 있을 때, 그 해결이 양편 다 옳은 것으로 되는 동시에, 양편 다 옳지 않은 것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그 어느 것도 용납 안 된다면, ‘없던 것’으로 하는 방안밖에 없다. 황희 정승의 명판결인 ‘네 말도 옳고 네 말도 옳다’는 것도 이런 범주에 속하는 것이다. ‘우기면 되고, 큰소리만 치면 안 될 것도 없다’ 등의 말이 무엇을 뜻하는가? 이를 “연극/의례성”이라 하면 무리일까?

사실 이러한 “연극/의례성”은 고프만(Goffman), 가펩클(Garfinkle), 빅터 터너(Victor Turner), 클리포드 기어츠(Clifford Geertz)의 문화분석과 직결되는 것이다. 나의 “대대문화문법”은 한국사회의 “현실 세계”를 철저히 현장관찰과 분석-성찰하면서 찾아낸 “문화문법의 규칙”이다. 표면적 행동 밑바닥에는 한문자 문화권의 ‘언어’속에 내포된 “대대”적 논리가 현대사회의 한국인의 행동양식에 직접 간접적으로 “문화문법”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이론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러한 3가지 규칙성은 서로 맞물려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급수성은 연결망(집단성)이 얼마나 넓은가를 구분하는데 활용되고, 또한 연극/의례성을 얼마나 “고단수”로 연행(performance)하는가를 따지는데 적용된다. 연극/의례성은 집단성으로 “세 불림”을 하면서 급수성을 더욱 “고양”시킨다. 그 뿐 아니라 연극/의례성은 급수성을 뒤집어서 “평등성”을 가져오게 할 수도 있고, 집단성을 전도시켜 “이기적 독자성”을 생성시킬 수 있다. 음양의 인지구조에서 “정태적 관계”와 “동태적 관

계”가 서로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점을 나의 여러 논문에서 지적하여 왔다. 따라서 급수성, 집단성, 연극/의례성은 서로 불가분의 관계 속에서 작동하고, 활용되고 있다.

### Ⅲ. 대대문화문법과 건강: 가부장 중심에서 모성 중심 사회로

이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문화 가족”의 경우를 다시 살펴보자. 우리 문화전통을 “단일 민족, 지나친 민족주의”로 강조해온 그 동안의 교육적 결과가 “지구촌 시대의 다문화 사회”로 나아가는데 많은 장애를 받고 있다. 문화의 핵심은 “언어”다. 그리고 다문화 가족의 어려움은 이 언어문제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은 이미 논했다.

건강의 개념은 문화적으로 구속된다. 그 좋은 예가 “화병”이다. 한국인만이 가지고 있다는 특유의 병으로 국제적으로도 공인된 병명이다. 자기의 어려움을 언어로 표현하지 못하고 속으로 삭히려다 생긴 병이다. 화날 때 화를 내야 하는데 이를 자제하다가 생긴 것이다. 화를 자제해야 하는 것은 문화적 규칙이다. 대대문화문법으로 풀이 해 보면, 연극/의례성의 규칙이다. 집단적 화목을 위하여 화가 나도 연극적으로 또는 의례적으로 화나지 않은 척 참아야 하는 문화적 규제에 속박 당하는 것이다.

부모세대에 비해 요즘 젊은 세대에게서 화병을 앓는다는 이야기는 별로 들리지 않는다. 이는 중요한 사실을 의미한다. 전통적 문화규칙에 새로운 자녀 세대들은 구속 받지 않고 있다는 증거다. 한국인 특유의 병이라고 세계학계가 규정한 이 병도 시대가 변하면서 점점 자취를 감추고 있다. 문화적 전통이 쉽게 변하지 않는 것이기에 젊은 세대가 나이가 들면서 다시 이런 병의 증후를 나타내

게 될지도 모른다. 부모자녀건강학회는 앞으로 할 일이 많다. 부모자녀의 건강문제보다 더 중요한 사회적 문제는 없기 때문이다. 이런 차원의 관찰과 진단도 게을리 하지 말아야한다. 문화적 규칙이 변하고 있다는 차원을 주목해야한다.

다문화 가족이 생기고 있는 현실에서 문화의 실체가 무엇인가를 주목해야할 과제이다. 앞에서 우리 문화문법이 어떤가를 강신포의 이론으로 고찰해 보았다. 전통사회의 문화문법은 가부장제 사회의 문화에서 비롯한 것이다. 문화 역시 정치적 권력관계를 배제한 채 이해한다는 것은 너무 단순한 발상이다. 즉 정치적 이데올로기는 권력을 가진 자들이 자기들의 지배체제를 합리화하는 수단에서 지나지 않는다는 것은 경제학자 칼 맑스, 사회학자 칼 만하임, 문화철학자 미셸 푸코 등이 명쾌하게 해명해 놓았다. 그들의 설명으로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어디에 매여서 살고 있었던가를 깨닫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스스로의 “해방”을 시도하기 시작한 것이 지난 한 세기의 역사다.

오늘날 “여성학”, “여성주의(feminism)”, “여성성”, “어머니 역할을 하는 사람(mothering person)”, “모성애” 등의 단어가 이 시대의 중요한 화두로 등장하고 있다. 2007년 후반기에 열린 여러 학회의 학술대회 주제는 “여성성”과 “다문화”이다.<sup>7)</sup> 다문화 문제는 한국사회가 당면한 심각한 문제로 등장한 것이다. 이미 오래 전부터 예고된 것이었으나 이를 알아채기까지 많은 세월을

요했던 것이다.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긴급한 대책을 수립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에 이르렀다.

여기서 우리의 문화전통이 무엇인가에 대한 성찰이 요구된다. 우리가 처한 현실을 진단하는 데는 어떻게 살아왔는지의 역사를 알아야한다. 의학적인 진단이라는 것도 실재로는 한사람의 <과거사>를 이해하는 것이다. 무엇을 어떻게 먹고 살아왔느냐로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 따져 나가야 한다. 추위와 더위를 어떻게 조절해 왔느냐. 어떤 집에서 살아왔느냐. 가장 중요한 것은 함께하며 살아가는 가족, 친척, 이웃, 동네, 지역, 나라, 세계 등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해와 인식과 경험>이다. 세상에 같은 사람은 하나도 없다. 한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형제자매들도 같은 사람은 없다. 하물며 역사와 문화를 달리하는 다른 나라, 다른 인종, 민족의 사람인 경우는 말할 나위가 없다.

우리는 나와 다른 것에 대한 이해와 인식과 경험이 부족하다. 대대적 문화문법은 그러한 이해와 인식과 경험이 부족할 때 통용되던 생활양식이다. 이제 변화의 물결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데 이르렀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의 과거는 지워지지 않는다. 그 과거가 무엇인가를 편견 없이 있는 그대로 대면해야한다. 이러한 대면 자세가 쉽지 않다. 그것은 무의식의 심연에 자리하는 내용이기 때문이다. 문화문법은 그런 것이다. 오랜 역사 속에서 침전되어 축적된 것이기에 그렇다. 역사는 아는 것만큼 보인다. 정신분석학은 무의식의 세계를 알아차리게 하는 작업이다. 그것은 전문가의 도움을 요한다. 일단 그 도움이 효력을 발생하면, 자기의 과거를 대면하게 되고, 그 굴레에서 벗어나게 된다.

우리 사회의 문제가 대부분 가부장의 유산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알아차리기 시작한 것도 최근의 일이다. 시대는 흐르는 것이 특징이다. 우리의 삶

7) 한국여성철학회 창립 10주년 기념학술대회, 2007. 7. 7. 이화여대. <다문화주의와 아시아 여성철학>; 2007년도 한국여성철학회·한국철학회 공동학술대회, 2007. 10. 27. 이화여대. <여성성 혹은 돌봄의 철학 : 생명과 철학의 화해를 위한 모색>;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07. 9. 13.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학술세미나. <다민족·다문화사회를 향한 한국사회의 도전과 전망>; 한국문화인류학회, 2007년 제 40차 학회 정기학술대회 II, 2007. 11. 16-17. 한양대학교. <에스닉과 다문화주의 인류학>; 2007년도 부모자녀건강학회, 2007. 10. 26. 가톨릭 상지대학. <다문화 가정의 건강관리>.

은 한정된 시간 속에서 진행된다. 동시에 “지금, 여기”만이 중요하다. “중요하다”는 것은 반드시 누구에게나 “중요한 것”은 아니다. 오직 각자의 삶이 가지고 있는 절대적 “한계성” 때문이다. 실존주의자들이 깨달은 “한계성”이다. 기독교 신자들의 “하나님과 마주한 한계성”이요, 부처님이 깨달은 “천상천하 유아독존”의 “한계성”이기도 하다.

한국문화의 “한계성”을 자각하는데 대대문화문법은 작은 디딤돌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모른다. 다문화 상황에서 우리가 왜 외국인 어머니와 아버지를 받아들이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를 이해하고 인식하고 경험하는데 대대문화문법은 “거울” 역할을 할 수 있다.

다음에 한 연구사례를 검토해 보자. 이 자료는 한국문화인류학회 2007년도 가을 정기학술대회에서 발표된 내용이다.<sup>8)</sup>

연구자: 현빈이랑 수빈이는 “내가 한국 사람이다”라고 생각해? 아니면, 필리핀 사람이기도 하다는 생각이 들어?

현 빈: 난 한국사람.

연구자: 그래도 아빠가 필리핀 사람이면 필리핀 사람이기도 한 것 아니야?

현 빈: 저한테요? 아니에요. 전 주민등록번호가 1부터 시작해요. 우리아빠는 5로 시작해요.

연구자: 아빠는 5로 시작해? 수빈이는 어때?

수 빈: 비슷해요.

연구자: 비슷해? 오빠 생각이랑? (수빈이 아니라고 고개저음) 그럼?

수 빈: 그냥 비슷해요..... 똑같애.

연구자: 한국 사람이기도 하고 필리핀 사람이기도 하다는 뜻이야?

수 빈: (수빈이 고개를 끄덕임)

.....

연구자: 그럼 따갈로그(필리핀어) 잘 하는 건 어떤 것 같애?

현 빈: 그건 별로 쓸데가 별로 없어요.

연구자: 니가 혹시 나중에 필리핀 여자 친구 사귄지도 모르잖아, 아니면 필리핀 가서 사업을 하거나, 아니야?

현 빈: (아니라는 뜻으로) 예.

연구자: 수빈이는? 수빈이도 따갈로그 잘하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 같애?

수 빈: 중요해요.

연구자: 왜 중요해?

수 빈: 그냥 다른 말 하면 좋잖아요.

연구자: 오빠 생각에는 별로 써먹을 데가 없잖아.

수 빈: 아빠랑 대화할 때 쓰면 되요.

<현빈이(13세)와 수빈이(12세) 남매와 인터뷰 중에서, 2007. 1. 4.>

“현빈이와 수빈이는 한국인 어머니와 필리핀 아버지를 둔 남매간이다. 같은 부모 밑에서 연년생으로 태어나 지금까지 같은 환경에서 자랐지만, ‘혼혈’로서의 ‘민족/종족’ 정체성에 대한 생각은 상당히 다르다”<sup>9)</sup>

김민정의 사례연구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다. 먼저 지적하고 싶은 점은 연구자의 질문이 발휘하는 역할의 문제다. 사람은 자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것과는 다르다. 상호작용하는 인간관계 속에서 서로는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고 받는다. 연구자가 던진 질문은 필리핀 혼혈아들에게 자기의 정체성에 대한 생각을 우리에게 알려 주기도 했지만, 반대로 연구자의 질문으로 현빈이 수빈이

8) 김민정, 2007, “국제결혼 가족과 ‘혼혈’ 자녀의 성장: ‘여러 종류의’ 한국인이 가족으로 사는 법”, 『에스닉과 다문화주의 인류학』, 한국문화인류학회, pp. 79-95.

9) 김민정, 같은 논문, p. 79.

는 자기의 정체성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할 수 있게 한 것을 주목해야 한다. 이러한 점은 연구자의 연구 자세가 단순히 자기의 학문적 관심을 넘어 연구 대상자의 “자기성찰”에 공헌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을 함의 한다. 이 점이 김민정(2007) 연구에서 돋보인다. 다음에 이 자료에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몇 가지 점을 지적해 보자.

1. 현빈이와 수빈이는 남매간으로 남자와 여자 아이이다. 그런데 남자 오빠 보다 여자 동생이 필리핀 언어를 배우는데 대한 생각이 훨씬 더 관용적이다. 이것은 생리적인 것일까, 아니면 문화(학습)에 의한 것일까? 마가렛 미드의 오랜 연구과제이기도 하지만 여기서도 같은 문제에 직면한다. 딸 수빈이는 아버지 에 대한 엘렉트라 콤플렉스 때문에 따갈로그어로 아버지와 대화를 나누고 싶어하는 지도 모른다.
2. 두 아이 남녀는 한국에서 한국문화 속에서 같은 환경에서 자라고 있다. 한국대대문화문법은 남자아이에게 더 많이 보인다. 첫째로 자기의 주민등록 번호가 1번으로 시작하는 것과 아버지 필리핀 외국인 주민번호는 5번으로 시작하는 것에 민감한 의식을 가지고 있다.
3. 왜 그런 민감한 의식을 갖게 되었을까? 다니는 학교에서 혼혈아라는 “따돌림” 같은 그 무엇이 자기의 주민등록번호가 1번이라는 것을 더욱 강하게 되었고, 이러한 의식이 한국인이라는 정체성을 더욱 강화한 것은 아닐까?
4. “낮을 많이 가리지만 사교적, 친구들이 많이 따르지만 신중하게 어울린다.”<sup>10)</sup> 라는 수빈이에 비해 현빈이는 “적극적이고 활동적이며 사교적이지만, 친구들과 원만하게 어울리지 못한다. 한국인이 돼야 한다는 강박감을 보이기도 한다.”<sup>11)</sup> 라고 연구자는 기록하고 있다. 이 점은

위에서 “따돌림’ 같은 그 무엇”이 현빈에게 작동하고 있음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5. 한국의 남자 어린아이들은 가부장적 성향을 자기 아버지로부터 의식/무의식적으로 익히고 있다. 상대적으로 혼혈아 현빈이는 필리핀 아버지의 가부장적 행동모델을 보지 못함으로 자기 친구와 다른 행동을 하게 되고 이로 인해 “원만하게 어울리지 못하는” 처지에 놓여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6. 여기서 현빈이에게는 주민등록번호 1번이 가지고 있는 은유(metaphor)가 크게 작용한다. 아버지의 주민등록번호 시작이 5번이라는 것에 민감하다. 1번은 은유상 1등으로 풀이가능하고, 5번은 5등이다. 대대문화문법인 “급수성”이 크게 작용하고 있음을 본다. 5번과 자기를 동일시하기 싫고, 1번의 한국인이라는 “강박관념”에 매일 수 있다.
7. 이는 가부장적인 대대문화문법의 “집단성”을 보여주고 있기도 하다. 즉 친구들과 어울림이 절실한 것이다. 이질적인 것에 대한 관용은 대대문화문법에서 그 “집단성” 규칙으로 인하여 쉽지 않다. 즉 집단의 결속력은 이질적인 것에 대한 배타성을 통해 이루어진다. 밖으로 배타성을 강하게 발휘하면서 안으로 결속력을 강화한다.
8. 내가 경상북도 대구에 있는 영남대학에 있을 때 뼈저리게 경험한 사실이다. 우리 집안은 원래 경남 의령인데, 나는 경남 통영에서 태어나 부산에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6.25전(1949년)에 서울 경기중학으로 유학 갔다. 그리고 서울대 사회학과를 나와, 미국 하와이대학에서 인류학 박사를 받고, 1973년 서울민국이 아닌 대한민국 지방대학에 자원해서 찾아갔다. 당시 인문 사회과학분야에서 미국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은 나 혼자였다. 그런데... 필요에 따라서는 동료교수(문화인류학과 외의 소속교수들)들이 이

10) 김민정, 같은 논문, p. 86.

11) 김민정, 같은 논문, p. 86.

른바 KS 마크라며 다른 대학이나, 외부인에게 소개할 때는 자랑으로 여기고, 또 다른 상황에서 못마땅한 행동이나 질투심 같은 것이 작용하면 “경상도 남쪽, 통영, 부산 사람”이라고 “하대한다.”(아랫것이라고 배타적 태도를 취한다). 여기서 나는 한국문화문법이 매우 “연극/의례”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자랑과 멸시가 연극/의례적으로 동시에 수행(performance)되고 있음을 보았다. 동시에 집단성은 배타성과 결속성이 함께하고 있음도 경험했다. 다시 말해 집단의 결속력은 배타성으로 나타난다.

9. 나는 인학도(人學徒, 인류학자라는 뜻의 강신표의 표현)로서 현빈이의 처지가 나의 과거 경험을 상기시킨다. 인간을 이해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나 같은 사람이 현빈이와 수빈이를 이해하는 것과 김민정이 그들을 이해하는 것과는 차이가 난다. 강신표의 인학 방법론은 이러한 “간주관적 접근”(inter-subjective approach)이다. 김민정이 분석한 혼혈아에 대한 정체성분류법이 한국인 1, 한국인 2, 경계인, 소외인, 등 4가지로 분석하고 있다.<sup>12)</sup> 이러한 분류법은 자연과학에서 하는 방법이다. 사람을 자연물과 같이 다루는 방식이다. 현대의학이 이러한 접근방식으로 인간의 질병을 치유하는데 크게 공헌할 수 있었다. 다시 말해 김민정의 접근방식에 감미되어야 할 것이 있음을 지적하는 것이다. 그녀의 분류상에 속하는 한 사람을 얼마나 깊게 “이해”하고자 노력했는가를 묻는 것이다. 여기에 대대문화문법의 활용가능성이 보인다.

나는 이 논문을 준비하면서 전북대 함한희 교수에게 논문초고를 보내 코멘트를 요청해 다음과 같은 편지(2007. 12. 13. 일자)를 보내왔다.

1. 한국의 대대문화문법안에서 앞으로 새로운 가정의 운영원리가 기존의 가부장적 원리와 어떻게 짝을 이룰 수 있을지를 전망해 주시는 것이 어떨까합니다. 새로운 가정의 운영원리는 모중심가족으로 국제결혼가정에서도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2. 오복이 전통 한국의 건강개념이었다면, 국제결혼가정에서 새로운 오복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합니다. 전통을 기본으로 해서 서로 다른 문화가 조우하면서 만들어내는 <오복>을 제시해서 새로운 가정의 비전을 제시해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3. 사례: 김민정의 발표문에서 필리핀아빠와 한국엄마 사이에서 태어난 현빈(13, 남)과 수빈(12, 여) 두 남매는 아빠가 자신들과는 다르다고 인식하고 있다. 아빠가 필리핀사람이기 때문에 너희들도 필리핀사람이기도 한 것은 아니냐는 연구자의 질문에 13살난 현빈이는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고 합니다.

“저는 한국사람이에요. 전 주민등록번호가 1부터 시작해요. 우리 아빠는 5로 시작해요.” 그리고 필리핀 말을 하느냐는 질문에 현빈이는 ‘그걸 쓸 데가 없어요’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건강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아이들이 아빠를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현빈이는 스스로는 한국인이라고 생각하고, 아빠는 자신과는 다른 외국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강박관념이 좀 심한 사례 같았습니다.

이 함한희 교수의 제안과 국제특배로 보내온 김민정님의 원본 자료는 나의 이 논문 작성에 큰 보탬이 되었다. 위에서 김민정 연구원이 수집한 사례를 분석한 것을 다시 이에 대한 나의 대대문

12) 김민정, 같은 논문, pp. 84-87.

화문법에 기초한 해석이 가능했던 것은 함한희 교수의 분석 방향 설정에서 비롯한다. 이러한 해명은 이 논문이 강신표의 독자적 발상이 아니고, 동료교수와의 협력 속에서 진행된 것임을 밝히는 것이다. 실제로 우리가 사는 세상은 무한대로 “열린 세상”이다. 이를 글이나 말로 우리의 논의가 진행되는 것은 무한대의 “열린 세상”에 대한 하나의 선택일 뿐이다. 그 선택은 시대가 요청하는 “설명 원리”를 공동으로 찾는 노력이다. 동시에 사람들에게 호소력 있는 설명이어야 한다. 그것을 혼자하기는 어렵다. 세상을 혼자서 파악하기란 불가능하다.

대대문화문법은 흔들리고 있다. 세월이 지나는 동안 지난날의 지혜는 새로운 지혜를 요구한다. 내면의 골격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 그러나 겉으로 새 옷을 갈아 입어야 한다. 이는 시대적 요구이다. 역사의 흐름은 시계추와 같다. 오른쪽으로 갔다 다시 왼쪽으로 기운다. 다시 오른쪽으로 되돌아가는 순환의 반복을 이어간다. 대대문화문법은 가부장적 지배체제를 합리화하고 지속하는 데만 기울었다. 그것은 가족과 친족, 동리생활과 지역사회의 성원들 간에서, 나아가 나라의 왕권과 신하들 사이에, 기존의 체제유지에 공헌했다. 서양문물은 새로운 세계가 있음을 알려왔다. 지금까지 시계추가 기운 방향과는 정 반대 방향이다. 대대문화문법과 다른 문화문법이 지배하는 세상이다. 100년 전 우리 조상들은 이를 이해하는 것조차 두려워했던 문화문법이다.

기존의 지배-복종 체제를 송두리째 뒤엎는 세계관이니 이를 받아 드릴 수 없었다. “위정척사”(바른 것을 지키고, 사악한 무리를 배척한다)라는 명목으로 쇄국정책을 펼쳤다. 그러나 서세동점의 지난 200년 이상의 역사적 흐름은 드디어 서양적 종교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여러 면에서 이질적인 것이 이 땅에 대단한 정도로 뿌리를 내리고 말

았다. 많은 것이 변했다. 그 변화는 지금에 와서 더 큰 소용돌이를 이루고 있다. 산업화, 정보화, 세계화의 물결 속에 이제 “더불어 함께”살아야 할 항목이 새로이 가미되고 있다. 이질적인 것을 무조건 배척할 수 있던 시대는 지났다. 오히려 이질적인 언어, 삶의 양식, 이질적인 문화문법을 선호하는 시대가 되었다.

이제는 다문화시대다. 현빈이 수빈이가 필리핀 아버지를 모시고 있다는 것이 오히려 특혜라고 여기도록 격려를 받아야 하는 시대이다. 그러나 우리의 아이들은 아직 미처 자각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이 필리핀과 연결망이 생겼다는 것은 세계화 시대에 사는 우리들의 자산이다.

#### IV. 맺는말: 오복(五福)시대에서 육복(六福)시대로

이제는 5복 시대에서 6복 시대로 넘어가고 있다. 5감 상위에 6감이 있듯이 6감은 여성 특유의 능력이다. 이 능력이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것 같다. 여성중심의 세상은 여성 가운데서도 모성의 능력이 제대로 발휘되는 세상이다. 과거의 모성은 아들을 생산해 남성중심의 가부장제 사회에서 제사 지내줄 남자아이를 잘 키우는 것을 기본으로 삼았다. 이제는 다르다. 여성학, 여성주의는 드디어 남자보다 더 적극적인 여성들의 위세를 발휘하기 시작했다.

남성중심시대는 5복 중심이었다. 그러나 이제 시대는 바뀌고 여성중심시대가 다가옴에 따라 6복 중심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그 여섯 번째 복은 무엇인가. 다양한 문화를 수용하는 “다문화”능력을 갖추는 복이다. 문화는 배우고 익히는 것이다. 부모의 몸에서 유전자로 전승되는 것이 아니다. 언어를 예로 들어 보자. 언어 구사는 “능력”만 생리적으로 타고 난다. 그 다음 “언어 학습 가능 능

력"에 어떤 언어가 입력되는가는 운명적으로 태어난 장소의 적소(適所, niche)에 따른다. 미국에서 아니면 일본, 중국에서 태어났다면, 영어, 일본어, 중국어를 하게 된다. 아니면 개인 스스로 학습하고자 선택한 언어에 대한 자기결단에 의존한다. 영어를 배우고자 하는 열기는 이를 반영한다. 기러기 가족, 조기 유학의 열풍은 무엇을 말하는가? "다문화 복"은 새로운 화두로 등장했다. 언어만이 아니다. 그러나 언어로부터 "다문화 복"은 시작한다. 이는 다른 것에 대한 관심과 깊은 이해와 그리고 관용을 요한다.

언어는 하나의 운명적인 수동적 습득일 수도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자기 결단적인 능동적 학습 결과 일 수도 있다. 언어만큼 학습하기 쉽고, 학습하기 어려운 것이 없다. 쉬운 것은 어릴 때 가족과 친구사이에서 무의식적으로 습득된다는 점이고, 어려운 것은 어른이 되고 난 다음에 배우려 할 때 이다.

결국 일생의 어느 시점에서 언어를 학습 하는가에 따라 쉽고 어려움을 가늠한다. 어릴 때 (10세 이전)는 쉽고, 그 이후부터는 점점 어려워진다. 여기서 주목해야할 점이 있다. 아무것도 각인(imprint)되지 않은 백지장에는 어떤 그림도 쉽게 그려지나, 일단 그림이나 글씨가 있는 종이에선 덧칠하는 각인이다. 덧칠된 각인은 쉽게 알아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변별력(distinctive features)이 떨어진다. 많은 경우, 기존에 입력된 그림이 바탕이 되어 새로 덧칠되어 입력된 내용을 기존의 변별 체계에 귀속시켜 이해하고, 수행(performance)한다. 이제 언어의 핵심인 소리의 경우로 따져 본다면 매우 복합적인 문제에 봉착한다. 인간의 인지적 능력과 정서적 능력도 언어와 깊게 결부되어 있다. 언어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생리적 구조가 재구성된다. 목소리를 내는 목의 성대로부터 시작해 목젓, 혀, 입천장, 상하 치아, 입술, 그리고 콧

구멍의 공명까지 소리의 발화(發話)에 관여한다.

오복에 관련되는 사항을 직감적으로 알아차리는 것도 여성이 더 앞선다. 생명을 잉태하고, 새싹을 키우는 것도, 그리고 생명의 성장을 알아차리고 기뻐하는 것도 남성들이 느낄 수 있는 한계 넘어까지 존재한다. 어쩌면 "모성적 본능"일지도 모른다. 전통적으로 한국여성이 집안 대소사 날짜를 기억하고 이를 준비하여 집안의 화목을 도모하는 일에 크게 공헌했다. 남자들은 대외적인 "간판 역할"에 지나지 않았다.<sup>13)</sup> 그래서 5복을 관리하는데 보다 직접적으로 관여 할 수 있다. 이제 6복 시대도 여성들이 주도한다. 6복이란 "다문화"라는 것을 앞에서 지적했다. 다른 언어를 구사할 줄 알고, 다른 문화에 대한 관용적 태도를 갖고 세계인이 되는 것이다. 자식들이 외국어 능력을 키우는데 적극적인 것은 모성의 역할이지 부성의 관심 대상이 아니다. 가부장제에서 모성 중심의 세상이 되어간다는 산 증거다.

가족 건강문제에서 급속히 문제되는 것이 노인 문제다. 생활환경의 변화로 같은 민족의 가족 간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데 요즘처럼 "다문화가정"이 급속도로 늘어나는 상황에서의 노인 문제는 또 다른 해결책을 찾아야할 분야이다. 그러나 연구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둘 것인가라는 문제는 회원 각자의 과제이기도 하나 학회 차원의 우선순위상의 공분모를 찾아서 공동의 작업을 진행하는 것도 바람직한 일이 될 것이다. 무엇보다 가족의 건강은 육체의 건강도 중요하지만 정신적 건강, 화목에서 찾아야 한다. 사회적으로 급속한 발전과 성장에서 개인들은 밖으로만 관심을 돌리고, 사회적 성취를 위해 가정 내의 위계질서나 화

13) 이 점은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 아버지는 별로 말이 없이 집안을 통솔했다. "무언의 위력"은 말 많은 어머니가 있기에 가능했다. 부모는 제 각각 대대문화문법에 충실했다.

목은 뒷전으로 밀려난다. 바로 이런 것이 개인의 발전과 출세는 도왔을지 모르나 가족 내의 건강한 관계에는 소홀하게 만든다. 이제는 이를 꼼꼼히 되짚어 보아야 할 때이다.

연구 방법도 단순히 표면적 관찰과 면접상의 언술에 표피적으로 접근하는 것도 경계해야한다. 사람은 자연물이 아니라는 사실을 거듭 강조한다. 심안으로 보도록 해야 한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또 하나의 자기 우주를 만들고 살아간다는 사실을 유념해야한다. 여기에 연구자와 연구대상자 간에 “성찰적 이해”가 함께 해야한다. 나 자신의 인간적 한계를 자각하고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우주에 대한 겸허한 대면 자세를 갖추어야 한다. “더불어 함께”(申榮福)라는 “이중적 인간 조건”(홀로서와 더불어서, 시인 具常)을 끊임없이 자

각해 나가는 성찰성이 그 해답이다. 관행적 돌봄에서 한걸음 더 들어가야 한다. 여기에 문화간호학적 접근<sup>14)</sup>이 요청된다.

부모자녀건강학회는 새로운 시대의 다문화환경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귀중한 공헌을 하게 될 것을 기대한다. 이제 학제적 연구가 더욱 절실히 요청된다. 국제적 교류가 다방면으로 진행되는 상황에서, 분과적인 접근에 의한 일방적 진단은 사태를 악화 시킬지도 모른다. 그러나 학회회원들의 진지한 노력과 적극적 연구 활동은 한국사회의 가족관계와 건강 증진에 중요한 공헌을 하게 되리라고 기대하면서 나의 기조강연을 마친다. (2007. 12. 22. 대만 다예대학 연구서제에서, 원고를 마무리 하다.)

14) 최영희, 강신표, 고성희, 조명희, (공저), 1992, 『看護와 韓國文化：文化記述誌의 接近』, 서울: 수문사